

지역 소식통

정읍시, 서남권 생활자원
회수센터 휴게시설 준공

정읍시는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설은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작업에 종사하는 40여 명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총 10억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연면적 340㎡ 규모로 조성된 휴게시설에는 식당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 건강권 확보와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휴게시설이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센터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행복생원원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역의 재활용 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처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 위원 재위촉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 영과동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 15명을 구성해 29일 재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협회는 기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대표 및 시의원 등으로 구성해 왔으나, 외부 환경분야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했다.

이중 주민대표로 활동할 위촉 위원은 정읍시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마을은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으로 5개면·동 25개 마을이 해당된다.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회의는 향후 2년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사십리 일대 해양관광지 조성

고창군, 국내 중견기업 4개사 3000억원 들여 2030년까지 리조트 등 건립



고창군의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가 만들어진다. 서해안 노을을 바라보는 최고의 자리에 온가족 놀거리와 쇼핑, 숙박시설을 만들어 베트남 푸꾸옥,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선셋비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가 만들어진다. 서해안 노을을 바라보는 최고의 자리에 온가족 놀거리와 쇼핑, 숙박시설을 만들어 베트남 푸꾸옥,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선셋비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기업 4곳((주)IG시스템, (주)P&K INC, 영풍제약, 서울경제TV)과 3000억원 상당의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김민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주)IG시스템 윤종구 대표, P&K INC 김태균 대표, (주)영풍제약 김재훈 대표, 서울경제TV 홍준석 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각 업체들은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무

리하고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 용역을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창군 상하변·해리면에 걸쳐 있는 명사십리 해변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8.5km의 직선형 해안이다. 일몰 시간이 되면 붉은 노을과 하늘빛 바다, 젖은 흙에 반사되어 붉은빛이로 맨타칸 장관을 만들어낸다.

명사십리에 대규모 해양관광지가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스키지

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의 대전환하게 된다. 군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30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노을대교 개통, 고창 종합테마파크와 연계돼 서해안 관광벨트 핵심 거점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은 고창의 지역경제와 관광을 이끌어 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벼 긴급공동방제·마을드론지원 병해충 방제

민선8기 고창군이 14개 전체 읍·면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림면 농암마을 들녘에서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연선회'를 참관하고 농업인들은 격려했다.

행사에선 벼 긴급공동방제 사업추진 현황과 마을드론 지원 시범사업 등이 보고됐다. 이후 마을드론 지원사업사업으로 지원된 10대의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라 공동방제 약제를 살포하는 장면이 시연됐다.

앞서 고창군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총사업비 7억3000만원(군비 5억1100만원, 자담 2억1900만원)을 전액 벼 경작지(1만115ha)에 투입했다.

특히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농업용 드론 지원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올해 14대의 농업용 드론 기체를 지원하여 영농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52



대의 병해충 방제용 드론을 보급한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은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과정 운영' 하면서 농업드론자격 취득자원을 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선 36농가가 드론자격을 취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걱정없이 농사짓고,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매년 마을단위 드론방제단을 확대 지원할 것이다"며 "어려운 농촌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추가 접수

정읍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만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5회 '부안 님의뽕' 축제 8월 2일 팡파르

부안댐 가족공원서 3일간 열려

폭염속 최고의 가족 피서지인 부안댐 가족공원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부안의 뽕(오디)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제15회 부안 '님의뽕' 축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소박하게 열린다.

부안서립신문(대표 이석기)이 주최하고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케이유터 부안단지사(지사장 최원용)가 후원하는 '부안 님의뽕' 축제는 부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부안에서 생산되는 뽕 관련제품의 전시판매는 물론 각종 체험장을 마련, 보고 즐기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등 뽕 관련 기관과 업체, 부안농산물 생산자 등 20여개 업체 100여종의 식품을 전시 홍보하게 될 '님의뽕' 축제는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뽕 제품을 선사할 계획이다.

얼음속 뽕 미니어쳐 찾기와 뽕 빨리 먹기 뽕 받아먹기, 뽕 바르고 댄스 뽕 제품 이름 부르기, 뽕 제품 가격



맞추고 무게 알아맞히기, 누에 물풍선 던지기 등 '추억 만들기'로 진행되는 각종 이벤트 경기는 지난해와 같이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할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님의뽕' 축제는 보고 듣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축제 기간중 매일 오후 3시부터 특별공연과 가족 노래자랑이 펼쳐져 즐거움을 보태게 된다.

첫날 개막식과 함께하는 공연은, 부안창작예술단과 부안주민의 전통창

극 공연으로 이어져 축제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둘째날인 3일에는 초대가수로 방가희, 강민수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족노래자랑'이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또 다른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특별경연으로 부안군내 13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예능경연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문화재단-자봉센터, 지역문화 활성화 협약

부안군문화재단은 지난 29일 부안군 지원봉사센터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정문화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부안군문화재단 전민정 사무국장과 부안군지원봉사센터 김영배 센터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전문성을 활용 문화예술 생활화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 내용은 △양 기관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적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경영 실천 및 확산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봉사활동 문화 조성 등으로 문화재단은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계획 중이다. 부안군문화재단 전민정 사무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